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2002 사명자 대회 8일째 행군 중

우리교회가 교회설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을 받은 성도임을 깨닫고 기도과 전도, 헌신으로 받은 사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50일간 진행되는 사명자 대회가 8일째 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남주는 2002 열린 바자가 함께 열려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실로 준비된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과 개인 기도실에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자신이 담당할 기도시간에 기도를 하는 무릎들이 끊이지 않아 해가 갈수록 더욱 성숙되어 가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사명자대회 본부는 50일간 계속되는 연속기도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

기 위하여 각 교구별로 담당할 기도순서를 순례자에 기재키로 하여 앞으로 사명자 대회가 끝나는 11월24일(주)까지 계속 1주단위로 게재하게 된다.

옆의 표를 참고하여 50일 연속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 날짜         | 교구     |
|------------|--------|
| 10. 14(월)  | 4교구    |
| 10. 15(화)  | 5,14교구 |
| 10. 16(수)  | 6교구    |
| 10. 17(목)  | 12교구   |
| 10. 18(금)  | 8교구    |
| 10. 19(토)  | 9교구    |
| 10. 20(주일) | 주일예배   |

### 2002년도 하반기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 10월18일(금) 저녁 7시 30분

올해 교사로 임명받은 교사들이 받은 소명대로 더욱 충성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기도를 갖는 2002년도 하반기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를 오는 10월18일(금) 저녁 7시 30분 1층 웨스트민스터실에서 갖는다.

교육위원회는 교육1국에서부터 5국까지 모든 교육부서의 교사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 시간을 위해 초청강사로 연세대학교 은준관 교수를 초청하여 "교회 학교의 미래-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의 가능성"이란 주제의 강연을 듣게된다.

이번 사명자 대회 공동기도처럼 교회학교 학생 일반 명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이때 많은 교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은 교사 교육의 시간을 가진 뒤 금요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국가와 교회 학생들 그리고 교사 자신을 위해 뜨거운 기도를 계속하게 된다.

2003년도 교사로 지망하는 성도들의 참여도 환영한다.

### 목회자 신학세미나 노무현, 이회창 후보 강연 내일(10월14일) 1,2교시에

22학기 목회자 세미나 10개 강의 일정 중 3명의 대선후보를 초청키로 하여 지난주 정몽준 후보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진 바 있는 우리교회는 내일 10월14일 목회자 세미나에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를 초청하여 대선후보 강연 순서를 모두 마치게 된다.

내일 강연은 오후 2시에 노무현 후보(민주당) 오후 3시 50분에 이회창 후보(한나라당)순서로 진행되며 지난 정몽준 후보 강연 때와 마찬가지로 1시간의 강연을 듣고 30분간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갖게 되며 우리교회 이종운 목사는 계속하여 교계를 대표한 질의 응답을 진행한다. 내일 순서도 모든 성도에게 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종운 목사의 시편 강해는 대선후보들의 강의로 내일 순서는 쉬게 된다.

또한 지난주 강연한 정몽준 후보의 강연은 정리하여 본지 4면에 게재 되어있다.

### 2002년 3,4교구 추계 일제 심방 10월15일 ~ 11월 2일

| 일자        | 다락방  |
|-----------|------|
| 10월15일(화) | 4-12 |
| 10월17일(목) | 4-5  |
| 10월18일(금) | 4-8  |
| 10월22일(화) | 4-7  |
| 10월24일(목) | 4-10 |
| 10월25일(금) | 4-9  |
| 10월26일(토) | 4-6  |
| 10월29일(화) | 3-10 |
| 10월31일(목) | 3-16 |
| 11월1일(금)  | 4-11 |
| 11월2일(토)  | 4-4  |

2002년 3,4교구(교구담당 목사 :오정식, 교구장:정병무 장로, 임훈규 장로) 추계심방 계획이 확정되었다.

교구간사와 다락방장들은 협력하여 다락방에 속한 모든 가족들 특히 다락방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가정, 교회출석이 힘든 가정 그리고 새가족들이 꼭 일제 심방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고 심방 일주일전에 각 가정의 기도제목을 교구 목사에게 제출하기 바란다. 또한 부득이 하게 심방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긴급히 교구 목사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 서울 챔버콰이어 연주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교회는 오늘(10월 13일) 찬양예배 시간 중 서울 챔버 콰이어의 찬양을 특별순서로 정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로 하였다. 1997년 창단하여 전문 음악인으로 구성되어 군부대, 교도소, 보육시설, 재활병원, 중, 고등학교 등 음악문화의 나눔을 필요로 하는 곳에 노래를 통하여 봉사하고 있는 서울 챔버 콰이어(seoul chamber choir)는 1999년 2월에 피츠버그의 Shadyside Church, 워싱턴 D.C, 노스 캐롤라이나, 샌프란시스코, 모데스토, 프레즈노, 하와이를 순회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 결식 아동 돕기 및 북한 동포 돕기 기금을 마련하여 전달하였고, 동년 7월에는 미국 서부의 San Francisco, Los Angeles, San Diego 등의 도시에서 2차 미국순회공연을 가진바 있다.

#### 금주의 성구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4-16)  
Therefore, since we have a great high priest who has gone through the heavens, Jesus the Son of God, let us hold firmly to the faith we profess.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we have one who has been tempted in every way, just as we are--yet was without sin. Let us then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Hebrews 4:14-16)

#### 이것만은 지켜요!!!

- 교회 성경책과 찬송가는 사용하신 후 잘 정돈해서 재자리에 놓아주세요.
- 많은 성도들이 쓰는 성경책, 깨끗하게 사용하십시오.
- 집에서 쓰시지 않는 성경책과 찬송가는 교회에 가져와 주세요.

# 없는 것 세 가지

## (호세아 4장 1 - 19절)

하나님은 간음하고 우상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 1. 이스라엘에 없는 것 세 가지

#### (1) 진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이 없다(no faithfulness)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신실하게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진실성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결혼관계에서 신실할 것을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아내 고멜에게 가정에 신실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멜은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간음한 여인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간음한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 1:21).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고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들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없고 오히려 그들 마음에는 교만과 어두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faithful) 분이여 믿음만한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시어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변한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도 없고 신실함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신실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 (2) 인애

인애는 영어로 devotion,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인애가 없다는 것은 종교성을 말하는 것으로 헌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헌신이 없이 단지 돈을 받기 위해 일합니다. 예수님은 값싼 목자를 책망하셨지만 이 시대에는 돈을 받은 만큼 일하는 값싼 목자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많은 이들이 손에 기름 묻히는 일, 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대기업을 참된 일꾼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주 5일제를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는 주 4일제까지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희생



이중윤 목사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설 때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되고,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있을 수 없습니다.

#### (3)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실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진실도 있게 되고 헌신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장로교를 창설한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모든 교리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의 1장 1절은 하나님 지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 지식을 바로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설 때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되고,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롬 1:20).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 2.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2절).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지식이 없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도덕적인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의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매스컴에는 도처에서 서로 깎아 내리려는 말로 난무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저주와 악으로 가득찬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므로 그들에게 신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희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여 속임수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과 피 흘리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으리라"(3절).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환경이 파괴됩니다. 브라질의 울창한 숲이 도벌꾼에 의해 훼손되므로 인해 지구에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같이 쓰는 삼푸가 물을 오염시키듯 인간은 스스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에는 물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실함과 희생과 하나님 지식이 없는 인간들은 마실 물도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4-5절).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과 다투며 하나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는 모든 권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10절).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그들에게는 불만만 가득할 뿐입니다. 원망과 시비만 가득 찬 세상이 됩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면 모두가 화가 나 있어서 한 사람도 기쁨에 차있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 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17-18절). 민족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나 하나님은 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롬 1:24).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정욕에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지도 않고 매를 때리시지도 않으며 악에 끌려가도록 버려 두십니다. 이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와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15절).

유다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덜 타락하여 아직 소망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져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길갈과 벳아웬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명령하시기를 길갈과 벳아웬에 가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편리주의를 따라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쉽게 옮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한 자리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인애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진실하고 인애가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02 이웃돕기와 헌당을 위한 열린 바자



## 잔치 잔치 벌렸네

우리교회 14개교구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만든 신나는 장터는 우리교회 만이 갖는 공동체의 한마당이였다. 몇 년 전만 해도 벽돌 한 장 값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좁은 반포동 예배당에서 아우성치던 우리가 다 지어진 예배당 뜰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헌당하겠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열려진 바자 장터는 감격과 감동 그 자체였다.



하나라도 더 팔아보려고 팔을 걷어올린 서울의 행복한 장사꾼들! 시멘트 바닥에서 울고 기도하던 기도의 용사들의 기백이 바자 장터에서도 그 실력을 발휘하여 대치동 장터가 시끌시끌하였다.

특별한 부서들의 참여로 더 이채로운 바자가 된 것 같았다. 사랑부는 온 교사들이 협력하여 만물상회를 차렸다. 아기 젖꼭지에서부터 의류와 플라스틱류, 완구, 저공해 빨래비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빨래비누는 신문지에 잘 포장되어 있었는데 우리 사랑부 학생들의 눈물겨운 작품이라고 부장 집사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셨다. 우리는 하나라는 일체감으로 마음 뿌듯하였다.



대학, 청년부는 나름대로 학생들의 소품, 핀, 액세서리, 의류 등을 팔아 100% 헌금하는 부서인데 얼마나 팔았는지? 그 아름답고 충성스런 마음을 계수하시리라. 빈대떡의 원조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권사님께서 이제 후배 권사들에게 전수하여 주셔서 줄서지 않으면 먹지도 못할뻔더러 냄새도 못 맡을 정도로 성황리에 잘 팔리고 빈대떡을 굽느라 도란도란 둘러앉아 응급진 모습은 갓 구운 빈대떡처럼 따끈따끈하여 온 교회가 훈훈하였다.



교회 하지는 복음의 장터이기도 하다. 성경책이 300 권이나 팔리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성경에 있는 천국만 하라 하는 복음의 확산의 증거이기도 하다.

순대요! 순대하미 일종을 바꾸신 권사님, 과장동에 가서서 일일이 재료를 다 구입하시고 순대 속을 기도하면서 채우신 순대 권사님, 3일동안만 순대의 길어까지 하다가 달아 천막에 가질 때도 순대권사님으로 인정하실지? 특별부는 그동안 아끼고 아끼놓았던 미술작품, 도자기 등등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내놓아 많은 수익금을 얻어 헌당의 한 몫을 담당하였다.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TV등)을 신제품으로 내놓은 장로님은 원가계산 없이 판매가 전액을 바치는 기업을 도하면서 옥합을 깨뜨려 바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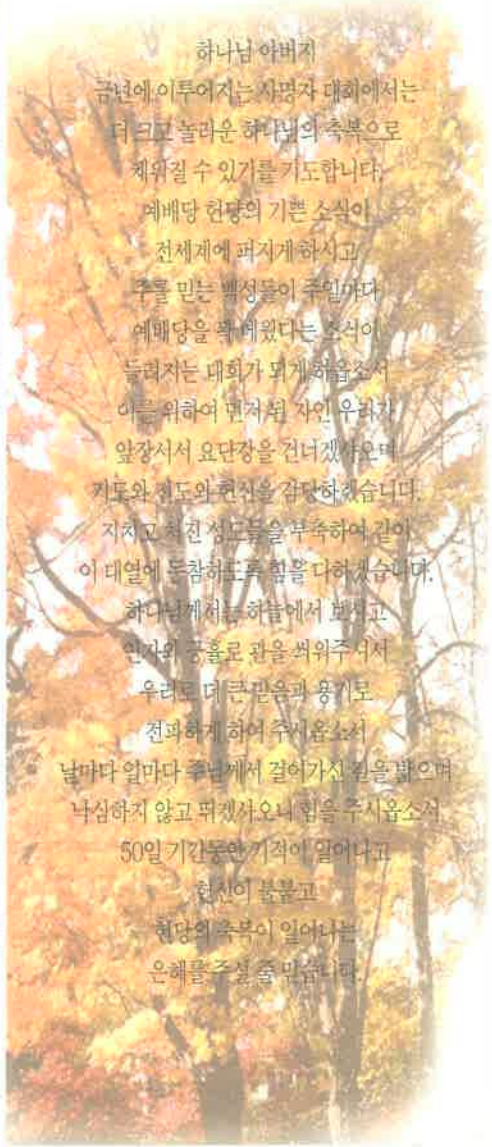
어느 매장 한 군데도 소홀함이 없어 드러지는 충성심은 대상액 보다 더 손과 발이 부르뜨도록 몇 달 전부터 준비하여 뛰어다니던 그 수고의 땅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리라.

우리의 작은사랑이 이웃의 큰사랑으로 전파되어 교회를 헌당하는 거룩한 손길로 푸짐히 열매맺기를 기도드립니다. 신동기(편집부)

# 예배당 헌당의 기본 소식을 주옵소서

김광신 장로 (12교구)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높임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교회 설립 11주년을 기념하며  
50일 전부터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으는  
사명자 대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과 역부족의 역사라고  
생각되었던 그 큰 새 예배당 입당을  
저희들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와 헌신이  
100배 이상의 축복으로  
키워져서 되돌아온  
사실에 우리 자신이 더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이루어지는 사명자 대회에서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당 헌당의 기본 소식이  
전세계에 퍼지게 하시고  
주를 믿는 백성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을 꼭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된 자인 우리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겠거니와  
저도와 천도와 헌신을 감당하겠습니다.  
지치고 지친 성도들을 부축하여 같이  
이 데일에 동참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인자와 공화로 관을 씌워주셔서  
우리로 더 큰 믿음과 용기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얼마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밝히며  
낙심하지 않고 뛰겠거니와 힘을 주시옵소서  
50일 기간동안 기적이 일어나고  
헌신이 불붙고  
헌당의 축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 22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대선 후보 초청 강연

신앙과 애국 - 정몽준 의원편



지난 10월7일 제22학기 목회자 세미나에서 정몽준 대선후보를 초청, '신앙과 애국'을 주제로 60분간 강연을 듣고 30분간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정리요약한 내용이다.

● 존경하는 이종윤 목사님과 목회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하고 성스러운 자리에 초청돼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아버님의 고향은 강원도고 6.25전쟁으로 가족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범일동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학교는 서울에서 다녔고 국회의원은 울산에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저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자랑스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월드컵 대회를 유치, 개최한 것도 하나의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남겼습니다. 월드컵 때 휴전선에서는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전하는 라디오 중계방송을 북한 쪽으로 틀어주었는데 우리 선수가 골을 넣을 때마다 북한 군인들이 박수를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높아진 위상 때문에 8천여 해외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가 분단된 것은 우리 스스로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해방이후 국제정세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자주적인 통일뿐만 아니라 최소한 우리의 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국제 정세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최소한 우리 통일을 반대하는 일은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제별 2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는 질문에 대해선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주요한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본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약간의 재산과 경제력이 있는 것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부정부패에서 해방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보면 사회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부정에 빠지지 않고 좋은 일 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헌법에서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의 임기가 5

년 단임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할 때부터 바로 레임덕(lameduck: 집권 말기권력누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초당적으로 거국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는 국민과 헌법의 명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직 대통령 2명과 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당 총재직을 내놓는 등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단임제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 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1971년 대통령 선거이래 지금까지 계속된 지역감정 대결구도라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30년 간 우리 나라를 괴롭혀 온 망국적 지역감정을 깨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남북전쟁당시 지역감정이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형편에 놓여있으면서도 우리 국민의 에너지와 창의력으로 그러한 곤경을 극복하면서 하나씩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1 대통령이 되신다면 우리 민족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 우리 국민들이 올해 12월 대통령을 뽑고 나서 당장 내년부터 잘먹고 잘살자 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퇴임하는 5년 뒤에는 지금보다 나라가 안정되고 개방되고 미래의 변화에 더 잘 대비하는 나라를 만들고 떠나라는 뜻으로 국민들이 뽑아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중요한 문제는 남북관계, 경제발전, 정치 부패 척결, 지역감정 해소 등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당과 야당간에 싸울 일이 하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어찌된 것이 이 모든 일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정의 일들이 모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데 이러한 것들이 정치싸움꾼들에 의해 왜곡되고 희생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본인이 부정부패하지 않고 자기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정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이 같은 국가적 중요 과제에 대해 강력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된 국정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정경유착의 보다 큰 책임은 정치권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력이 깨끗하면 정경유착은 근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나라 대기업들 가운데 저에게 돈 갖다 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2 한국의 사립학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 수가 현재 355개가 있고 그 중 백 년이 넘는 학교가 3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 학교



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최근에 성경과목을 정규과목에서 제외하는 일들이 벌어져 교계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권을 학교장에 위임한다는 안이 나와 이사회를 무시하는 꼴이 되어서 결국 기독교 사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입니까?

- 목사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그 법안은 우리 나라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깨뜨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질문3 대통령이 되신다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무슨 공헌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전에 보다 훨씬 성숙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나라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죄 같은 것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종교의 자유가 일체 외부로부터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4 어제(10월6일)는 주일이었는데 어제 교회가 없습니까?

-예. 교회에 가서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정리: 김민철 사진: 정동호 (편집부)

동성

- 이종윤 목사는 17일(목) 서울장신대 채플에서 설교한다. 18일(금)총회 주기도문 사도신경 번역위원회를 소집한다.
- 김영희 · 이원정 성도(5교구) 투덕
- 이사: 최영자성도(4교구) 서초구 방배 본동 783-15 301호 595-7416
- 이준수 집사 · 이경희 집사 강동구 둔촌동 주공A405-103 473-3575

◎ 금주의 식사제공: 강중심 집사전인화선사 (저녁결혼식을 은혜 중에 마치고)  
◎ 목회자세미나간식제공: 이기진 장로 박우주 피백 권사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8시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02 사명자 대회를 위하여
2. 목회자세미나 · 서울성경대학 · 주부대학 · 살롬경로대학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아시아 게임과 연말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
| 주일예배  | I 부 오전 9시       |
|       | II 부 오전 11시 20분 |
|       | III부 오후 2시      |
| 찬양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수요예배  | I 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9시 30분       |
|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